



# 학문을 가지고 심각하게 장난을 치라

기초강연의 총평으로 본 단체 고문이자 지금도 한국의 기독교자들에게  
속제를 내주시고 밀어주시는 Wesley Wentworth(IVP 고문) 선생님과 학자들의 멘토이자  
본 단체 이사장이신 손봉호(고신대) 교수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세계관 문제나 기독교학문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어려움  
을 내포하고 있다. 두 문제가 다 사실은 우리가 처한 세  
계와 역사적 상황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우리가 원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세계관을 보면, 세  
계관이란 말은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철학자들이 처음  
으로 학문적 용어로 사용하였는데, 이미 그 자체가 상대  
주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  
스의 학문은 이성의 절대성에 근거해서 발달되었기 때  
문에 세계관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다. 세계를 바라  
보는 눈은 오직 하나, 이성의 눈이었으니까. 다만 우리  
가 아직 모든 것을 충분히 모를 뿐, 학문을 통하여 모  
든 것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세계를 바라보는 정확한 한  
가지의 눈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이  
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고 소위 계몽주의 프로젝트에 대  
한 비판적 시각이 생겨났다. 니체의 유명한 '이성은 창  
녀다란 발언이 그것을 잘 대변한다. 놀랍게도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루터였다. 이성과 학문, 다 사실은 그리  
스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그  
리스 혹은 헬레니즘 문화는 처음부터 갈등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기독교와 학문

기독교와 학문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것의 연합이다.  
기독교는 우리의 확실성을 하나님의 사랑에 둔다. 그리  
스의 학문/종교는 확실성을 존재(being)에 둔다. 변하  
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지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 철학과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  
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조화되기는  
어렵다. "기독교" "학문"은 불안한 것이고 그 때문에 우  
리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성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절대적인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했는데 이를 비판하기 시작  
하면서 세계관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관점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학문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 가능  
해졌기 때문에 "기독교적" 학문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세계관을 말하고 기독교적 학문을 말하는 것에  
이미 상대주의적 세계관이 숨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상대주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있다. 우리가  
세계관을 말하고 기독교적 학문을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상대주의의 문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것이다. 이를 솔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론  
문화가 상대주의적이라 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도 상대  
적이라 해서 안 된다. 비록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의 주장이 상대적이 아님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믿어야 한다.

##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렇다. 과연 주어져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세계관이다" 하고 내 놓  
을 것은 없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상이지 주어진 현실이 아니다. 실제로 삶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세계관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  
회의 문화와 무관 할 수 없다. 아무리 기독교인이어도

한국인이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다. 100% 성경적  
인 완벽한 세계관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인이 기  
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려면 한국 문화의 세계관이  
어떻게 기독교적이지 않는가를 알아야 하고 따라서 기  
독교적 세계관 이념은 비판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  
는 것이다.

한국의 세계관은 철저히 차세중심적 세계관이라고 생  
각한다. 하나님도,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이란 관점이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  
는 것이다. 거기서 온갖 비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다. 기독교세계관을 비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우  
리의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상일 것이다.

**어떻게 학문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학문적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존재에 우리의 확실성을 둔다는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기독교적 학문에만 몰두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학문을 하나의 게임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한다. 장구나 바둑처럼 학문에도 룰이 있다. 우리끼리 약속한 룰대로 이루어져야 학문이라 한다. 쿤(Thomas Kuhn)의 패러다임 이론을 빌려 생각해 보자. 쿤은 과학의 패러다임은 바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이언스의 룰이 영원불멸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주어진 룰에 따라 학문활동을 하고 있다. 비록 장기의 규칙이 실제 전쟁의 규칙과 같지 않지만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장기를 두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장기가 실제 전쟁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과학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룰에 따라서 열심히 학문활동을 하고 수월성을 나타내야 한다. 장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자연과 인간의 현실을 올바로 보며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엄청난게 큰 도움을 주는 놀이이기 때문이다. 다소 비판적인 시각은 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것은 오히려 더 창조적으로 학문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문의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알 수는 없다 본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학문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어떤 학문도 삶의 의미를 제시할 수 없고 사랑, 죽음, 슬픔, 행복 등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설명해 주지 못한다. 사실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학문 밖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문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학문을 장난치듯 하

는 것을 권한다. 너무 몰두한다면 진정한 학문을 못한다고 본다. 학문에 몰두하다 보면 연구의 대상이 아닌 승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학문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중요하다. 학문이란 “관념을 가지고 유희”(play with ideas)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학문을 장난으로 하되 심각하게 장난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의미를 주거나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다. 그러나 가끔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독교와 학문 두 가지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용하며 실험해야 한다. 칼 막스는 2학기 동안 그 시대의 다른 학생들이 20학기 공부할 것을 공부했다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20배 더 공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독교세계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변혁이다.**

한국에서는 세계관운동이 생긴 것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앙생활을 일관성 있게 하려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 지성인들은 고민을 많이 했다. 박윤선 목사님이 개혁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신앙과 학문, 삶 전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송인규 교수께서 세계관을 배웠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는가 하고 질문했다. 지식으로 아는 세계관은 그리스적이지 성경적 세계관이 될 수 없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세계관 운동도 삶의 운동이지 지식의 운동이 아니다.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면 삶의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제30회 기독교학문학회 이모저모**

이번 30회 기독교학문학회에서는 젊은 학자들의 학문과 차세대 연구자를 위해 “신신학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기독교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다.



대학원생 2개 분과와 기독교보건학회, 로고스경영학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경제경영분과), 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철학/예술, 융합, 기독교세계관, 총 9개 분과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번 학문학회의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새로남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논문우수상 시상식이 있었다. 기독교 학문연구회의 학술지인 <신앙과 학문>에 지난 1년간 게재된 논문들 중 우수한 논문 1편을 선정하여 <새로남 신앙과 학문 우수논문상>을 시상했다. 제30회 기독교학문학회 우수논문상은 송실대학교 김인섭 교수의 <신앙과 학문> 18(3)에 실린 “윤동주 시 평가의 재조명 - 성서수용과 신앙발달단계를 중심으로-” 논문이 선정되었다.



또한 청년 기독교학자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대학원생 발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심사하여 <새로남 청년발표우수논문상>을 시상했다.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생 박사 수료생인 이정규의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대한 개혁주의적 조명” 논문이 수상하였다.

